

시민안전 및 공공시설·환경관리 실태 벤치마킹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개 요

- 기 간 : 2017. 2. 27.(월) ~ 3. 5.(일) / 5박 7일
- 방 문 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인 원 : 8명 (행자위 5명, 전문위원 1명, 공무원 2명)
- 목 적 : 시민안전 및 공공시설·환경관리 실태 등 선진지 견학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

I. 출장 개요	1
II. 방문국 현황	3
III. 주요 출장 내용	7
IV. 기타사항 및 제안내용	11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자료(의원별)	31

- 시민안전 및 공공시설·환경관리 실태 벤치마킹을 위한 -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대 상 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목 적

- 세계적인 청렴도와 국민 안전의식이 높은 선진국가를 방문하여 견제·감시의 안목 확대
- 공공시설 관리와 쓰레기 배출 수거 등 시민 생활환경 관리 실태 벤치마킹

○ 기 간 : 2017. 2. 27.(월) ~ 3. 5.(일) / 5박 7일

○ 출장자 인적사항

연번	소속(위원회)	직위	성별	성명	비고
계				8명	
1	순 천 시 의 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남	박용운	
2	”	간사	여	장숙희	
3	”	위원	남	정영태	
4	”	위원	남	서정진	
5	”	위원	남	유영철	
6	의 회 사 무 국	전문위원	남	오봉수	
7	”	-	남	신현호	
8	”	-	여	정정숙	

○ 연수 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계획)	비 고
1일차 2. 27. (월)	순천-인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전용버스 KE671	0730 1200 1320 1640 2155	•순천 출발 •중식(자율식) •인천국제공항 도착 ~ 티켓팅 •탑승 및 인천 출발(석식 기내식) •쿠알라룸푸르 도착 후 투숙	비행시간 (약 6"20분)
2일차 2. 28. (화)	쿠알라룸푸르 겐팅 스카이웨이	전용버스	0900 1200 1400	•겐팅으로 이동(1시간 소요) 하이랜드 견학 -테마파크, 쇼핑, 공연, 스포츠 등 거리안전실태 등 •점심 •바투동굴투어 관광지 안전실태 •석식 및 반딧불이 투어 •쿠알라룸푸르 시내 귀환 후 투숙	
3일차 3. 1. (수)	쿠알라룸푸르 말리카	전용버스	0900 1200 1700	•쿠알라룸푸르 시내 견학(거리청결 및 안전실태 등) -모스크사원, 메르데카광장, KLCC공원 등 관리실태 -부킷빈땅, 왕궁, 차도르체험 등 •점심 후 시청사 견학(배치동선, 주변경관 등) •말리카 이동, 석식 후 투숙	
4일차 3. 2. (목)	말리카 조호바루	전용버스	0900 1200 1400 1700	•말리카 차이나타운, 첩흥탱사원, 그리스도교회 문화탐방 -네덜란드광장, 스타다이스거리 청결, 관리실태 등 -세인트폴교회, 산티아고요새(트라이쇼, 리버보트) •점심 •조호바루 이동(3시간) •조호프리미엄아웃렛 방문, 석식 후 투숙	
5일차 3. 3. (금)	조호바루 싱가포르	전용버스	0900 1200 1930	•싱가포르 이동(40분) 시내탐방 -아랍스트리트, 차이나타운, 에스플러네이드 외관, 머라이언공원 등 시가지 쓰레기수거실태, 도시안전 등 •점심 후 시청사 견학(배치동선, 경관, 안전도 등) •리버보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야간경관 실태 •석식 후 투숙	
6일차 3. 4. (토)	싱가포르	전용버스 KE644	0900 1200 1930 2235	•보타닉 가든, 주룽새공원 등 공원동선, 관리실태 견학 •점심 •센토사섬(케이블카, 머라이언타워) 관광시설 안전도 등 •쇼핑센터 견학(30~40분)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출발	
7일차 3. 5. (일)	인천-순천	전용버스	0555 0700 1200	•인천국제공항 도착 •인천 출발 •순천 도착	

II 방문국 현황

○ 말레이시아



- 수도 : 쿠알라룸푸르
- 면적 : 33만km²(세계 67위) ※ 우리나라의 3.3배
- 인구 : 31백만명(2016. 7.)
- 언어 : 70여개의 다른 어족에서 생성된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어인 “바하사 멜라유” 외에도 영어는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로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교육을 받는다. 최근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 유학이 늘고 있다.

- 독립 : 1957. 8. 31.
- 정체 : 입헌군주제, 양원제
- 종교 : 이슬람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으나 이슬람교, 불교, 도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등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이슬람을 위한 모스크, 불교 신도를 위한 절, 힌두교의 힌두사원 그리고 교회와 성당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 종교의 축제가 있으며 타 종교인들을 초대하여 즐기는 “오픈 하우스”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 인종 :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원주민인 오랑 아슬리,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혼혈 인종인 페라나칸인 그리고 유럽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
이 중 다수 인종은 말레이(66%), 중국계(26%), 인도계(8%)로 구성되어 있다.
- 역사 :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13세기까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식민 열강들이 향료가 풍부한 말라카에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16세기 포르투갈의 침공 이후 네덜란드의 말라카 점령을 거쳐, 18세기 영국이 페낭을 점령하면서 말레이시아 지역은 20세기 초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으며, 1963년 동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현재의 말레이시아 연방을 성립하였다.
-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림

○ 싱가포르



- 수도 : 싱가포르
- 면적 : 700km²(세계 192위) ※ 순천 면적(910km²)보다 작음
- 인구 : 580만명(2016. 7.)
- 언어 :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 건국 : 1965. 8. 9.
- 정체 : 공화제
- 종교 : 불교(42.5%), 이슬람교(14.9%), 도교(8.5%), 힌두교(4%), 가톨릭교(4.8%), 기타 기독교(9.8%), 기타(0.7%), 무교(14.8%)

- 기후 : 전형적인 열대기후로 무덥고 습하며 비가 자주 내린다.
- 역사 :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이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어 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 사회 : 중국인·말레이인·인도 파키스탄인·유럽계인 등이 저마다 다른 언어·풍습·습관·문화·종교를 가지고 있다.
인종에 따라 직업도 다른데 대부분 중국인은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및 상업에 종사하고, 말레이인은 하급 공무원과 하급 노동자로 일하며, 인도인은 공무원이거나 택시기사, 청소부 등이 많다.
-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림

Ⅲ 주요 출장 내용

1 청렴도에 관하여

<< 말레이시아 >>

-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월급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봉임
-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사례를 단속하기도 하지만, 전시행정엔 불과하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부의 재분배」로 해석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면목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순위에 7위를 차지하였음(우리나라 52위)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자치주로 연방 체제를 유지해오다 1965년에 독립하였다. 독립 당시 혼란과 빈곤 속에 아시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도시국가였으나, 불세출의 지도자 이광호 전 총리에 의해서 세계에서 법 집행이 가장 강한 나라,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 또한, 이광호 전 총리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소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였고, 1994년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전문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렸다고 한다.
- 이광호 전 총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미화 20만 달러 뇌물을 받은 국토개발부 장관은 이광호 총리의 오랜 측근이자 친구였음에도 선처를 하지도 않았고, 만나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자살로 생을 마칠 정도의 청렴을 강조한 나라이다.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지리적 조건으로 지금까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 겐팅 하이랜드로 가기 위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3km가 넘게 이동을 하였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빗방울이 조금 떨어져도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말레이시아의 안전 의식을 알 수 있었다.

<< 싱가포르 >>

-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에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1위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 하지만 그 이유가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테러단체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무엇보다 싱가포르가 식품 안전 국가 세계 2위라는 것
-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이며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식품 안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식품수입의 공급처를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싱가포르 농식품수익청의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 농식품수익청은 식량 안보 로드맵을 통해 식품의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현지 생산을 최적화 해 오고 있다.
- 또한 싱가포르는 강력한 제재와 법 집행으로 안전을 구축하고 있다.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허가된 곳을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특히, 대학가 앞에도 카페나 유흥음식점이 없다.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전국에서 하루에 3만 7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만 하루 3,5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음
-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는 축구장 35개의 크기에 해당하는 28ha 면적에 2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함
- 2015년 9월부터 재활용 고품 쓰레기는 반드시 비닐봉투에 별도로 담아 배출하도록 시범기간을 주었으며, 2016년 6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개시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재활용률을 22%까지 끌어올릴 계획
- 실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카, 조호바루 3곳을 다녀왔지만 생각보다 거리 구석구석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 싱가포르 >>

- 싱가포르의 Green Plan 정책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처와 공·사기업체,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연구부처는 환경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정책의 공식화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싱가포르는 20여년간 일반 국민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국가 구현
- 거리를 더럽혔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벌금 1,000 싱가포르달러 (약 800,000원)가 부과되며, 그 다음에 또 적발 시에는 대중 장소를 청소하는 사회봉사활동과 벌금 2,000싱가포르달러(약 1,600,000원)가 부과된다고 한다.

- 싱가포르 안에서 껌을 소지하거나 파는 행위 및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도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싱가포르의 쓰레기 배출 정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레기 분리를 따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가 공휴일도 예외없이 매일 이루어지고, 쓰레기 배출에 따른 국민조세부담이 없다.
- 싱가포르가 깨끗한 이유는 많은 쓰레기통 비치와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청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실제로 생각과는 달리 정류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흡연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재떨이가 부착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서 바닥이 깨끗한 편이었음
- 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쓰레기가 종종 눈에 띄었으며,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는 담배꽂초가 우수관에 버려져 있는 모습도 보이는 등 우리나라와 실제 다를 바가 없었다.

IV 기타사항 및 제안내용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시청사



쿠알라룸푸르 시청은 고개가 아플 정도의 높은 고층 건물로 변화한 도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더 이상의 확장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2020년 200만의 도시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1984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 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야기되는 심각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수상이 일부 공무원들과 푸트라자야로 가장 먼저 이주를 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3개 연방직할령 중 하나인 푸트라자야시는 13개 주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명은 말레이시아 초대 총리를 지낸 툰쿠 압둘 라만 푸트라라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건설된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시는 다양한 문화공간 구비와 스포츠 등 행사 개최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친환경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시 청사를 건립할 때, 선택과 집중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들었다.
 현재의 위치에서 시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확장성이 아무래도 제한되기 마련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정도의 복잡성과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해야하는 시 청사 건립을 고려해보면 말레이시아의 모습을 교훈삼아 시 청사를 두 군데로 나누어 건설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시도 시 청사를 건립할 때 오른쪽의 사진처럼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우리 시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을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업무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겐팅 하이랜드

겐팅 하이랜드는 해발 2,000m 높이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인공 관광지이다. 도박을 금지하는 이슬람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으로, 방대한 고원 위에 카지노와 호텔 이외에도 테마파크, 쇼핑, 공연, 골프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러한 시설들이 즐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이었으며,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38km로 동남아시아 최장거리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겐팅 하이랜드에 도착하였다.

얼마나 높이 위치해 있는지 구름 위를 뚫고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느낌이였다.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케이블카 운행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였으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상 문제로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블카에 방송 장비를 구축하여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방송으로 탑승객을 안심시켜 주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게팅 하이랜드 카지노는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한 카지노이자, 게팅 하이랜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즐길거리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최초 수상이었던 툰쿠 압둘라만이 고엔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게팅 하이랜드 리조트에 카지노 허가권을 부여하였으며, 단 한 명의 이슬람교도라도 출입시 즉시 폐쇄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카지노 산업이 숙박업과 외식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게팅 하이랜드의 경우 휴양지로서는 보기 드물게 연평균 객실 점유율이 85%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관광산업의 최대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오로지 외국인만을 위한 관광 카지노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다.



사진은 기둥에 홍보 매체를 설치하여 입체적으로 홍보하는 모습

순천시 청사 건립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성과 공간성 그리고 홍보 능력을 최대한 조화롭게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투 동굴

바투 동굴은 1878년에 발견되었고, 주위에 100만년도 더 되어 보이는 지층이 노출되어 있으며 힌두교 성지로 숭배되고 있다. 힌두교 사원과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동굴은 힌두교 축제인 타이푸삼 기간이 되면 수천 명의 신자들과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곳이라 한다.

바투 동굴에서 압권은 종유동굴로 이어지는 272개의 가파른 계단이다. 272개의 죄를 뜻하고 있는 계단을 다 오름으로써,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힌두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계단 양옆으로 있는 숲에는 토종 야생 원숭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힌두교의 전쟁과 승리의 신 무루간의 모습(오른쪽)과 인간이 저지러 수 있는 죄를 뜻해 만들었다는 272 계단(왼쪽) 종교의 신성함과 매력성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타이푸삼 축제기간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고, 수많은 힌두교 순례자들이 무루간 신을 향해 참회와 속죄의 고행 순례가 이어진다고 한다.

온천



자연 개방된 마을 온천. 일년내내 푸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고 일부 마을 현지인들만 온천을 즐기고 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온천이지만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지화하면 관광 수입 등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딧불이 투어



깨끗한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반딧불이를 체험한 것은 정말 특별하고도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칠곡 같은 어둠과 고요함 속에 자연의 소리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한 여름밤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반딧불이는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마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세상의 시름을 떨쳐버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순천만국가정원에도 반딧불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여(배를 타고 투어 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반딧불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의 매력성과 가치성은 더욱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킷 멜라와티 공원



공원에 있는 우물에 스토리텔링을 하여 관광자연화한 모습



말레이시아 수도에 있는
부킷 멜라와티 공원에서
순천시의 사감운동을 펼치다.

사랑과 **감사**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통하는
단어라는 것을 느꼈다.

부킷 멜라와티 공원 내에는 몽키힐이 있다. 이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바로 원숭이들을 보기 위함이다. 원숭이 언덕의 수많은 원숭이들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사람들과 차량을 무서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차 속으로 들어가 먹을거리를 달라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지만, 단체로 몰려오는 모습은 사실 다소 무서웠다.



세계동물영화제를 개최하는 우리 시의 경우에도, 연승이 언덕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세계동물영화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특색있고 매력있는 온순한 동물들을 일정 공간에 풀어놓아 관광객들이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동물영화제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까?

트윈 타워

KLCC로도 알려진 88층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s)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건물로, 높이는 451.9m이며 1998년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으로 건축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아 경쟁관계임을 알고 공동으로 건축을 맡겼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성이 건축을 수주하였는데,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고전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의 유능한 인재들과 협력하여 결국 일본보다 더 빨리 완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슬람 건축물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아르헨티나계 미국인인 시저 펠리(Cesar Pelli)가 디자인을 하였으며, 이 건물 앞에는 넓고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KLCC 공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왼쪽은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은 일본에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야경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 시 청사를 건립할 때도 이러한 경쟁관계의 에피소드를 고향삼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시청을 이보다 더 멋진, 건축물이 아닌 예술품으로 만들어 저녁마다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시청 앞으로 몰려와 함께 즐기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

이스타나 네가라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왕중의 왕인 국왕이 거주하는 왕궁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스타나는 왕궁, 네가라는 국립이란 뜻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왕이 있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 왕 선출 방식은 그 역사를 반영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다. 연방을 이루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9개 주는 세습 왕족인 술탄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들 9명의 술탄이 번갈아가며 5년마다 국왕의 자리를 맡게 되고, 나머지 4개 주는 왕이 선출한 장관이 통치를 하게 된다.



관광객을 위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일부 공간만이라도 개방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국립 모스크

1965년에 완공된 국립 모스크는 1965년 새롭게 독립하여 통일을 이룬 말레이시아의 상징물로 건축된 국립 이슬람 사원이다.

유일하게 이교도의 사원 내부까지의 방문을 허가하는 곳이며, 이슬람교에 대한 국민의 신앙을 맹세하는 상징물이다.



국립 모스크 내부 견학시에는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해야 한다.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입구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시 착용하는

의류인 차도르를 착용하여야 한다.

근대적인 18각 별모양의 돔과 높이 73m인 첨탑이 특징인데, 18각은 말레이시아의 13주와 이슬람교의 5가지 계율을 의미한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최대 모스크 중의 하나인 이 곳의 중앙 기도실은 이슬람 신자만이 입장할 수 있는데, 8,000명의 무슬림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영표, 도서관, 회의실 등도 갖추고 있다.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경우, 정해진 방문 가능 시간을 필히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사연 안의 첨탑 앞에 연못
시 청사를 건립할 때
순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에 이러한 상징물(첨탑)과
거대한 연못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라카 - 네덜란드 광장, 세인트폴 교회, 산티아고 요새

말라카는 말레이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역사가 깊은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 도시이다.

동남아시아 역사의 주요 기점이 되었던 이 곳은 14세기 이슬람왕국이 건설되었으며,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항구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건축물(많은 사적, 서구적 건축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말라카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 조화롭게 살고 있는 여러 인종의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네덜란드 광장(왼쪽)과 삼륜자전거(오른쪽)

네덜란드 광장은 말라카 관광의 중심부이자 만남의 광장이라 할 수 있다.

시계탑과 빅토리아 분수가 제일 먼저 눈에 띄며, 여행객들을 관광지까지 이동시켜주는 트라이쇼(삼륜자전거)를 운행하기도 한다.



【 세인트 폴 교회 】

세인트 폴 교회는 1521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인트 폴 언덕에 예배당으로 건립하였으며, 이후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부터 귀족들의 묘소로 사용되었고, 이 때부터 “세인트 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스페인 귀족 출신으로 유명한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중국에서 죽은 후 인도로 이장되기 전에 이곳에 잠시 묻혀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며, 교회 앞에는 자비에르 동상(왼쪽 상단)이 말라카 해협을 굽어 내려다보며 서 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기독교 역사의 유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시켜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의 관광 명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산티아고 요새

세인트 폴 언덕 입구에 있는 낡은 석조물로서 1511년 “파모사”로 불리던 강력한 포르투갈인들의 요새였는데, 네덜란드의 침공으로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시청

싱가포르 시청은 1945년에 루이스 마운트 배튼 경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인 곳이며, 리 쿠안 예우가 1959년 영국으로부터의 싱가포르의 독립을 외치던 장소라고 한다.



싱가포르 시청 앞에는 넓은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어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고 한다.
우리 시 청사를 건립할 때에도 이러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문화발전을 위하여 주말에 재능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콘서트나 연극 등을 준비하여 보여주고,
뜻깊은 행사(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 등)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머라이언 공원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상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으로, 8.6m의 거대한 크기의 머라이언상이 공원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머라이언은 바다를 뜻하는 “Mer”와 산스크리트어로 “Singa”로 해석되는 “Lion”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곳은 싱가포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입에서 물을 뱉어내는 머라이언 상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다.



일부 장소의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정류장에 재떨이가 있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상당히 충격을 주었다.

SANDS SKYPARK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았던 싱가포르의 야경 한마디로 정말 아름다웠다.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 수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

우리 시 청사를 건립할 때 맨 꼭대기 층에 이러한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멋지게 마련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유료로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시청에서 야경을 감상하고 자연스레 놀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를 위해 관광객들이 중앙동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면 윈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타닉 가든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 식물원이다. 식물원인 동시에 공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많은 현지인들이 휴식을 취하러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보타닉 가든에는 열대림, 장미, 난초 등 다양한 식물종이 자라고 있으며, 가든 내에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따 와 지은 난을 포함하여 약 1,000종류의 난을 볼 수 있는 국립 난초 정원(National Orchid Garden)이 있다.



주룽 새 공원

싱가포르의 3대 동물공원 중 하나인 주룽 새 공원은 싱가포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관광지이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만큼 약 20만m²의 면적에 500종 이상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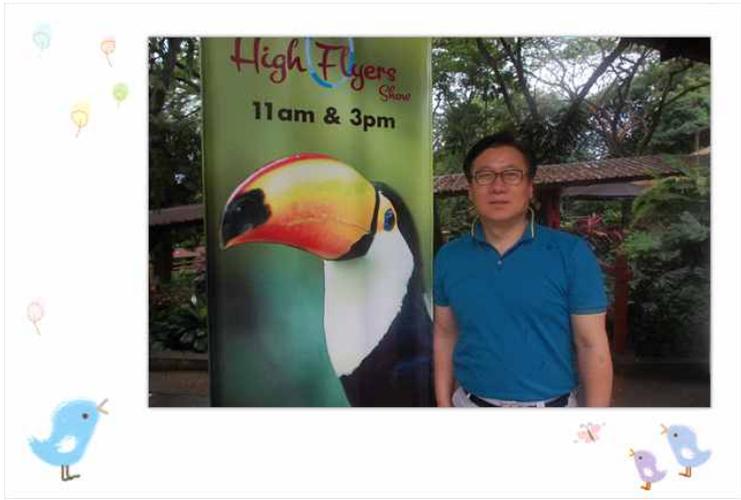
공원은 여러 개의 구역에 앵무새, 펭귄, 열대지방의 새, 야행성 새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람객 각자의 취향에 맞게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새들에게 모이를 줄 수도 있고 새들이 묘기를 부리는 각종 쇼도 즐길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화장실도 단순한 일반적인 화장실이 아닌 관광도시의 명품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연 속의 꽃과 함께 하는 매력적이고 특별한 야외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순천만국가정원의 수많은 꽃과 나무들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것 같다.

(제출서식)

공무국의출장 결과보고자료

제출자 : 행정자치위원회 박용운

방문국(지역,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말레이시아(공원관리) (홍보판 관리) (홍보전광판 관리) (건축기술) (친환경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숭이를 방목하여 사람들과 친근한 놀이시간을 즐길 수 있음. ○ 가로등주에 개폐형 배너기 설치대가 있어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접었다 폈다할 수 있음. ○ 고가도로 교각공간을 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홍보효과 높임. ○ 한국의 기술로 건설된 88층쌍둥이건물은 한국의 자부심을 느끼게 함. ○ 소형경전철을 운행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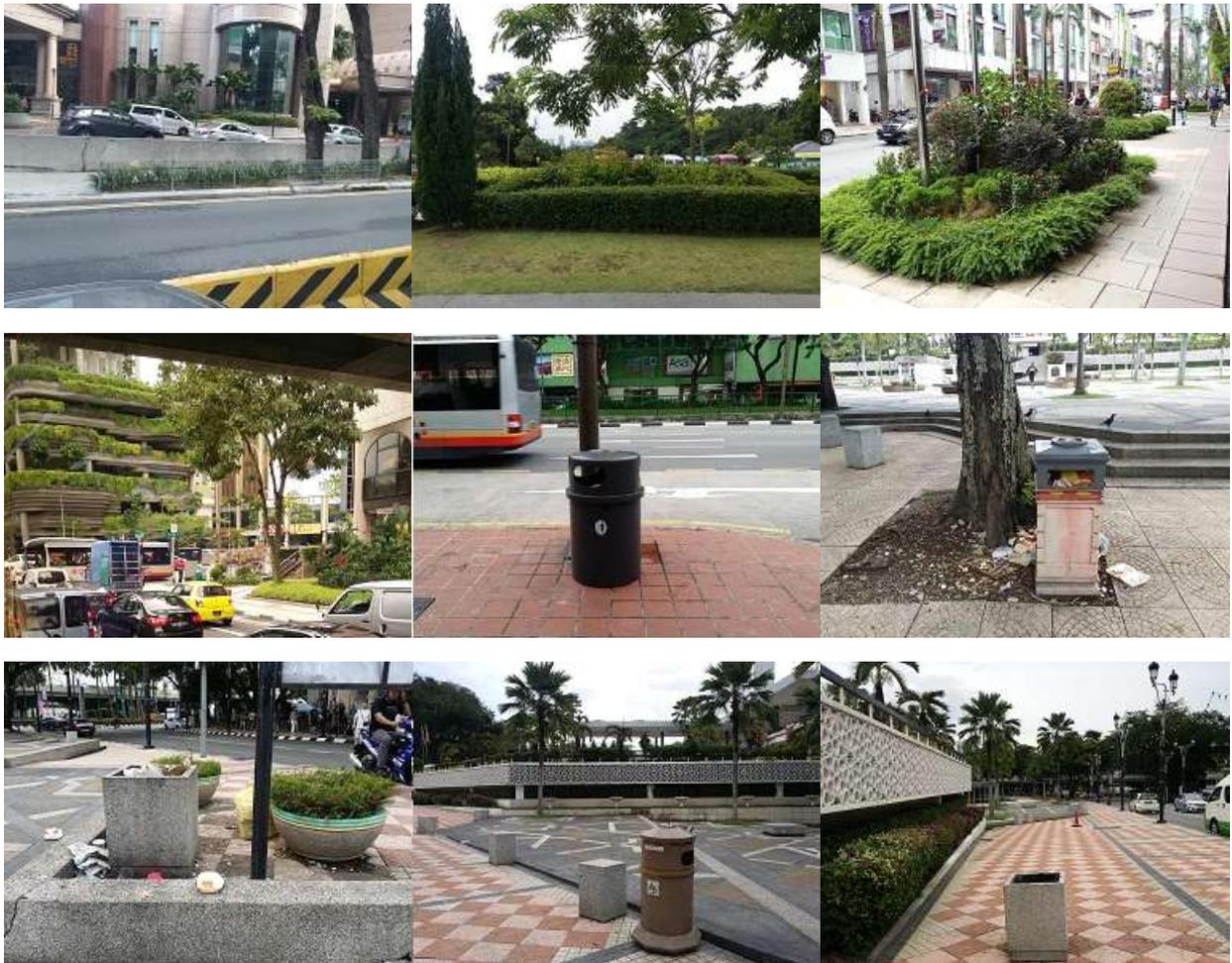
(제출서식)

공무국의출장 결과보고자료

제출자 :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방문국(지역,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싱가포르(건물녹화) (가로화단 안전관리) (가로화단 관리) (쓰레기배출) 말레이시아(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벽면녹화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음. ○ 가로화단에 도로쪽에는 철조망시설을 하여 안전도를 높여주고 있음. ○ 가로화단에는 초화류보다 관목이나 교목을 심어 사시사철 관리가 용이 ○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음. (곳에 따라 쓰레기가 방치된 곳도 눈에 띄.) ○ 가로등기둥에 꽃상징물을 설치하여 꽃의도시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음. 	

<사진자료>





(제출서식)

공무국의출장 결과보고자료

제출자 : 행정자치위원회 정영태

방문국(지역,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말레이시아(교통관리) (쓰레기 도구관리) (시청사 관리) (도시미래상 관리) (기구표관리) (청사내 일방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로타리에는 점선경계표시를 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있음. ○ 도로 중간중간 나무밑에 쓰레기처리도구보관함을 비치 관리하고 있음. ○ 쿠알라룸푸르 시청 휴게공간에 청사건물 미니어쳐를 설치하여 청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도심지 발전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를 비치하여 도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음. ○ 시의회와 시청 간부 조직도를 사진첨부 부착하여 이해가 쉽도록 함. ○ 쿠알라룸푸르시청 부지가 협소하여 내부 일방통행을 진행 중임. 	

<사진자료>



(제출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자료

제출자 : 행정자치위원회 서정진

방문국(지역,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p>싱가폴(공초문화) (가로화분내놓기) (화장실관리) (관광지 주차장관리) (정원고목관리) (가로수와 잔디광장)</p>	<p>○ 거리 곳곳에 담배공초통을 비치하여 거리에 공초를 안 버리고 있음. ○ 거리나 건물주변에 화분내놓기를 생활화하여 꽃이 있는 거리 분위기를 연출함. ○ 화장실에 비데기 대신 물호스만 설치하여 물절약을 생활화함. ○ 관광지 버스주차장을 포켓형으로 하고, 잔디블럭과 개별라인을 도색하여 안전하게 진출입, 승하차 하도록 함. ○ 국가정원내에는 수십미터의 고목이 심어져 있어 공원의 역사성을 말해 주고 있음. ○ 도심지 내에도 고목 가로수와 잔디광장이 있어 무더위에도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음.</p>	

<사진자료>





(제출서식)

공무국의출장 결과보고자료

제출자 : 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방문국(지역,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p>싱가폴(공원관리)</p> <p>(공원시설물 관리)</p> <p>(중앙분리대 관리)</p> <p>(도시녹지 관리)</p> <p>(시청사 공간)</p> <p>(식물원 공간)</p> <p>(담벽주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원에 태양광을 지면으로 전해주는 인공나무를 설치하여 전기를 자체조달해서 사용함. ○ 동물모양의 의자를 조각품으로 제작하여 예술미와 친근미를 더해주고 있음. ○ 도심지 도로 중앙분리대가 울창한 숲처럼 가꾸어져 있음. ○ 아파트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도시녹지율을 높여주고 있음. ○ 싱가포르시청사 앞에는 넓은 잔디마당이 있어 주민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음. ○ 식물원 내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 있음. ○ 중요시설의 담벽에 가로수를 이동식화분으로 설치하여 수시로 이동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사진자료>



